

서부전선 군포교 '이상 무!'

28사단 81연대 이웃종교 시설로 법당 확장 '눈길'

군포교는 국군 장병의 사기진작과 차세대 불자 양성 차원에서 중요성을 다들 공감한다. 하지만 인적·물적 자원이 따르지 못해 일선 각 부대 군부사나 포교사들은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날로 줄어드는 불자 수에 '군포교는 물론 교계 포교 전반을 재점검해야 하지 않나'는 발언까지 나오는 가운데, 서부전선 최전방 부대 한 곳에서 이웃종교 시설로 쓰이던 공간을 법당으로 확장·이전한 사례가 있어 눈길을 끈다.

경기도 연천에 위치한 28사단 81연대 2대대는 12월 23일 영내 불교 종교시설인 일심정사의 이전 개원법회 및 관음보살 점안 법회를 봉행했다. 조계종 포교국장을 역임한 용하 스님(포천 중화사 주지)이 개인법사로 참석했다. 매주 부대의 법회를 이끌던 이명락 포교사, 최영식 포교사 등 조계종 포교사단 9구팀과 부대장병 100여명도 자리를 함께 했다.

일심정사가 이전한 자리는 과거 가톨릭



12월 23일 한 마음으로 일심정사 개원법회를 봉행하는 용하 스님과 장병들.

공소(公所)가 위치했던 곳. 천유강 병장은 "가톨릭 행사 참여자가 적어 빈 공간이 된 곳을 고태남 중령과 선홍래 주임원사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이전하게 됐다"며 "용하

스님과 이명락 포교사 등의 지속적인 부대 방문으로 영내 불교행사 참석자수가 늘어 나 결과"라고 귀띔했다.

점안을 마친 용하 스님은 "예전 법당은

연천·조동섭 기자

부대 불자 전우들이 한자리에 함께 하기 어려울 정도로 협소했다.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법당을 이전할 수 있게 됐다"며 "부처님 말씀 열심히 듣고 실천해 사회에 나가서도 좋은 일꾼이 돼 달라"고 장병들에게 당부했다.

6년째 이 부대에서 법회를 이끌고 있는 이명락 포교사는 "재정적으로 어렵지만 일요일이면 한번이라도 더 장병들과 얼굴을 맞대고 부처님 말씀을 나누고자 최선을 다해왔다. 빚될 새는 예전 법당에서 원력을 세워 오늘 불사를 이루게 됐다"고 말했다.

일심정사 이전은 용하 스님과 이명락 포교사 뿐 아니라 부대지원관, 장병 등이 한마음으로 정진한 결과다. 특히 천유강 병장, 양일환 병장, 최복현 상병, 김승경 일병 등 4명의 군중병들이 장병과 법사간 조율 역할을 잘했던 것도 한 이유다. 예전에 사용했던 법당 공간은 장병들을 위한 노래방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지난해 서부전선 최전방에서 들려온 뿌듯한 소식은 무자년 새해 한국 불교의 힘찬 전진을 예견하는 듯하다.

미륵사지 금동향로 특별展

내년 9월까지 익산 미륵사지유물전시관서 개최

익산 미륵사지유물전시관(관장 유기상)은 개관 10주년 기념으로 2000년 10월 미륵사지에서 출토된 동물 얼굴 형태의 다리 4개가 달린 보물급 '미륵사지출토 금동향로' 특별전 개막식을 12월 26일 미륵사지유물전시관에서 개최했다.

이번에 특별전시되는 금동향로는 높이 30.0cm, 지름 29.7cm, 무게 7.15kg의 비교적 큰 크기로 크게 3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반원형으로 높게 솟은 뚜껑(蓋部)과 운두가 낮은 납작한 대야형의 몸체(身部), 그리고 4개의 다리로 구성된 대부(臺部)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뚜껑에는 연화문, 하트(葉形), 구름(雲) 모양의 장식이 있으며, 몸체에는 사자얼굴 다리와 동물얼굴모양 장식이 부착되어 있다. 금동향로는 구리 87.5%, 주석 8.3%의 비율로 주조되었다.

향로 연관에 보이는 고식의 연판문 구조와 8세기 안압지 토기에 사용된 윤당초문과 유사한 연기구멍의 문양, 균형 잡히고 세련된 기형과 중후한 다리 장식 등으로 보아 8-9세기경에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금까지 발굴 유물로 전해오는 향로 가운데 이처럼 완전한 형태와 양호한 상태를 가지고 발견된 사례는 국보 제287호 백제금동대향로가 유일하다. 금동향로의 뚜껑 상단에



익산 미륵사지출토 금동향로

새겨진 8엽 연화문이 우리나라 와당(瓦當)에서 볼 수 있는 부드럽고 세련된 연화문을 그대로 살려낸 듯하며, 전체적으로는 우리의 특장적인 금속공예의 특징을 볼 수 있어 미술사적 가치가 매우 큰 보물로 평가되고 있다.

미륵사지출토 금동향로는 2000년 11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국립문화재연구소가 보존처리했고, 2007년 7월 30일 국가귀속과 함께 미륵사지유물전시관에 관리위임되었다. 특별전과 동시에 금동향로에 대한 보존처리 내용, 미술사적 연구 논문, 향로 사진 등을 담은 도록도 함께 발간했다.

특별전은 9월 30일까지 미륵사지유물전시관 기획전시실에서 열린다. 조동섭 전북지사장

"희망찬 새해 발원합니다"

부산·경남지역 사찰 신년맞이 행사 다채

2007년을 참회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행사가 각 사찰에서 열렸다.

선찰 대본산 범어사주지 대성은 한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맞이를 위한 발원 타종식을 봉행했다.

12월 31일 범어사 설법전 및 종각 등 경내에서 송년법회를 봉행하고 새해맞이 발원 타종식을 거행했다.

주지 대성 스님은 "송년법회와 제야의 종 타종식을 봉행하는 의미는 한해를 마무리하고 희망찬 새해를 기원하며 원력을 다지기 위함이다"며 "부산의 대표적인 명승지 범어사에서 부산 시민들과 함께 새해맞이를 함으로 지역주민과의 유

대감 강화 및 불교 문화를 알리는 기회"라고 밝혔다.

행사는 범어사 가족 영화제 연화관람, 송년법회, 탑돌이, 제등행렬, 타종식 순으로 진행됐다.

용두산 미타선원(주지 하림)은 2007년을 돌아보는 참회기도와 주지스님과 함께하는 타종식을 열어 희망찬 새해를 발원했다.

또 신도들이 함께 하는 웃음이를 통해 화합을 다지며 1월 1일 새벽 6시 부산 대청공원에서 새해맞이 행사를 거행했다. 동명불원(주지 정산)과 해인정사(주지 수진)도 송년 법회를 열고 타종식을 봉행했다.

허성미 기자

'조직기증 희망 릴레이' 성료

108호점 불암사서 현판식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민)가 올 해동안 행정자치부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전개한 '2007 뇌사 조직기증 희망 릴레이 1000' 사업을 12월 22일 남양주 불암사에서 마무리했다.

불암사는 이사장 일민 스님이 주석하는 사찰이어서 '생명나눔 함께 하는 불암사' 108호점 현판식을 진행하며 사업의 끝을 장식하게 됐다. 조직기증 희망 릴레이는 장기기증 활성화와 원활한 헌혈증·치료비 나눔 사업 홍보를 위해 적합한 장소 108곳을 선정, 현판식과 모금함을 비치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1호점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삼천사·법원사 등의 사찰은 물론 광동고등학교, 능충중앙회 등의 학교와 기업도 참여를 해왔다.

이사장 일민스님은 "적합한 조직을 찾지 못하거나 치료비가 없어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이 많다"며 생명나눔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부탁했다.

김강진 기자

불국사 불국성림원 '문 활짝'

물리치료·간호사실 등 다양한 복지 지원 설비 구비

조계종 제11교구본사 불국사(주지 성타)가 1월 1일 실비노인요양시설 불국성림원 운영을 시작했다.

불국성림원은 경주 산내면에 위치, 총 24억원이 투입돼 연건평 410평 지상2층 건물로 완공됐다. 1층에는 식당·목욕실·자원봉사자실·의무실·프로그램실 등을, 2층에는 노인들이 거주하게 될 요양실과 물리치료실·오락실·간호사실·생활지도원실 등의 다양한 복지서비스 지원 설비를 갖추고 있다.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 김도형씨 출소

병역법위반혐의로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영등포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김도형(28·법경 덕봉)씨가 12월 24일 가석방대상자로 선정돼 출소했다.

김씨는 불교계에서 오대양씨에 이

입소자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도록 개별상담, 촉탁의사 진료, 물리치료 등의 건강관리 시스템과 텃밭 가꾸기, 노래 및 미술교실 등을 운영할 방침이다.

입소대상자는 치매 중증 등 노인성질환을 앓고 있으면서 보호가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으로 1인당 월평균 소득액이 101만3천원 이하인 가구의 노인이다. 정원은 50명이며 현재 입소자 접수를 받고 있다. (054)746-9900 김강진 기자

이 두 번째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언, 화제를 모은 바 있다.

현재 김씨는 전남 장흥 고향집에서 머물며 향후 진로를 모색 중이다. 그는 우선 1월 2-5일 있을 생명평화 결사에 참여한 후 강원도 양구의 대안학교 '산촌유학'에서 활동할 예정이다. 김강진 기자

"국적 달라도 佛心으로 통해요"

봉은사에서 '한일 청소년 교류 템플스테이' 개최

"한국 친구들, 반가워요!"

일본 청소년 20여명이 12월 22-26일 한국을 찾았다. 파라미터 청소년협회(회장 도후)와 아시아불교도연맹(이사장 우시모 닛슈)가 함께 여는 '한일청소년 교류 템플스테이'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이들은 12월 22일 한국에 도착, 서울 봉은사에서 템플스테이를 체험한 후 한국 학생 20여명과 만났다. 이후 한국 학생들과 일대일로 짝을 이뤄 홈스테이를 진행하며 한국 가정 문화를 몸으로 익혔다. 또 이들은 탁본·연꽃 및 염주만들기 등의 사찰 체험은 물론 고궁 견학, 코엑스 관람 등을 즐기며 한국의 전반적인 문화를 이해하는 데도 힘썼다. 여기에는 한국 학생들의 도움이 컸다.

서로 언어가 달라 초반에는 어색했지만 이들은 시간이 갈수록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템플스테이에 참가한 니시무라 미키(16) 양은 "한국 친구들과 우리는 외모 만큼이나 취향이 비슷해 잘 어울릴 수 있었다"면서 "다음에는 일본에 꼭 방문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강진 기자

(재)대한불교조계종

안국선원

"좋은 인연입니다"

불기 2552(2008)년 희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해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두루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부산 : 부산광역시 금정구 남산동 35-14번지(지하철 1호선 두산역 8번 출구)
TEL (051)583-0993 · 0994 / FAX (051)583-0999

■ 서울 : 서울시 종로구 가회동 10-3(지하철 3호선 안국역 2번 출구)
TEL (02)732-0772, (744)0772 / FAX (02)744-0779 www.ahnkookzen.org

대한불교천태종

부산 삼광사

새 희망의 2008년에도 부처님의 자비광명으로 늘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주 지 김 영 제

총무	김도진	재무	김효성	노 전	윤덕준
신도회장	김석조	신도부회장	홍경표	조임순	총무위원
교무위원	정재위	재무위원	이종희, 부학자, 김영숙	사업위원	김석홍
기획위원	송세현	조직위원	김광호	홍보위원	우신길
부녀위원	정옥순	사부대중일동	합장	섭외위원	이봉영

■ 정기법회 : 매월(양력)1, 2일 오전 10시 ■ 가족법회 : 매월 3주 일요일 오전 10시 30분
* 부산금강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 2008년 2월 15일까지 접수(051-808-0713, 073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읍동 산 131번지
TEL (051)808-7111~5 FAX (051)803-1332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samkwangsa.or.kr